

■ 법률 칼럼

### 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 기록이 영주권 갱신 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



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권우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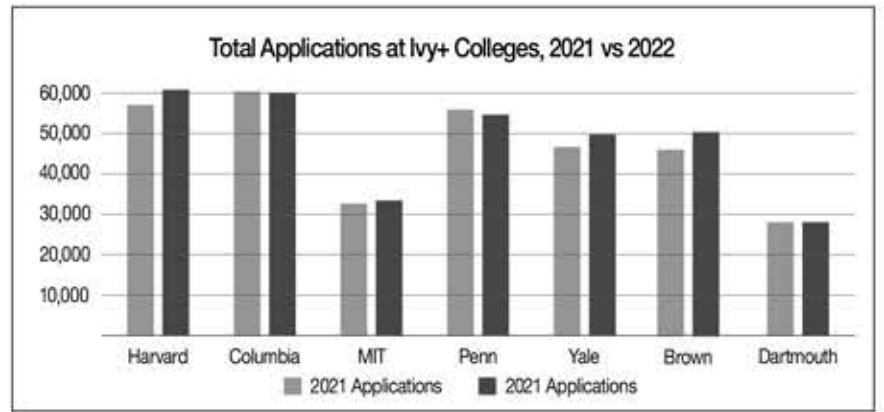
● LA Office: (213) 232-166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 2023학년도 아이비리그 입시 전망



School	Harvard	Columbia	MIT	Yale	Brown	Dartmouth
2021 Admission Rate	3.4%	3.89%	4.03%	4.62%	5.4%	6.17%
2022 Admission Rate	3.19%	3.73%	3.96%	4.47%	5.03%	6.24%

▲ 출처: sparkadmissions.com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미국 대학 입시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많은 대학들이 SAT-ACT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채택했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첫째, 미국 상위권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지원자가 폭증한 가운데 혹독한 입시지옥을 경험했다. 사상 최고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각 대학마다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22학년도에는 다트머스와 유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합격률이 낮아졌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2022학년도에 비록 지원자가 팬데믹 첫째만큼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준을 유지했거나 약간 합격률이 높아졌다. 표면적으로는 상승폭이 미미하지만 첫째 놀라운 증가세를 보인 뒤 상위권 학교에서 지원자가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아이비

리그 대학과 스탠퍼드, MIT에 2022년 가을 입학 원서를 제출했다. 팬데믹 첫째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위권 학교들은 30%, 40%, 심지어 50%까지 지원서가 증가했고, 이것은 사상 최저의 입학률로 이어졌다. 다트머스와 펜난이 전체 지원 건수가 소폭 감소했고 브라운 대학은 전년 대비 10%의 지원자수가 증가했다.

팬데믹 첫째에 합격한 많은 학생들이 갭이어를 신청했다. 2022년 많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들의 기숙사, 카페테리아 등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2021년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했다.

위의 그래프와 표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아이비리그 대학과 아이비 플러스대학들의 지원자 수와 합격률 비교이다. (자료 출처: sparkadmissions.com)

그렇다면 금년도 2023학년도 미국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